

# ‘빅게임 피쳐’ 류현진이 돌아왔다

콜로라도 잡고 시즌 5승...LA 1위 탈환  
7이닝 무실점 완벽투...평균자책점 2.18  
최고 구속 150km·직구 평균 146km 위력투

‘괴물’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올해 소속팀의 농사를 좌우할 중요한 일전에서 눈부신 역투를 펼쳐 시즌 5승(3패)째를 수확했다.

류현진은 18일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안타 4개만 맞았을 뿐 실점하지 않고 쾌투했다.

몸에 맞는 공과 볼넷은 한 개도 주지 않았고, 삼진 5개를 슈아냈다.

류현진은 지난달 27일 샌디에이전 이래 4번째 도전 만에 5승(3패)째를 거둬들였다. 평균자책점은 2.42에서 2.18로 내려갔다.

7이닝 동안 공 93개를 던져 63개를 스트라이크로 쏘았다.

지난해 류현진은 콜로라도에 4전 전패를 당했다. 홈런을 7방이나 맞고 평균자책점 8.64로 부진했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만난 콜로라도에 결정적인 순간 치명타를 안기며 지난해 빔을 깨끗하게 설욕했다.

류현진은 1회에 최고 구속 시속 150km를 찍었고 이후에도 시속 140km대 중후반으로 속구 구속을 유지했다. 특히 다양한 변화구 대신 속구와 체인지업, 컷 패스트볼 3개 구종으로 콜로라도 강타선에 맞서 대성공을 거뒀다.

류현진은 1회 까다로운 톱타자 찰리 블랙먼을 유격수 매니 마차도의 호수비로 잡아내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1사 후 ‘천적’ 놀런 에러나도에게 2루수 앞 내야 안타를 허용했으나 트레버 스토리를 3루수 땅볼로 요리하고 1회를 마쳤다.

타선이 1회말 2점을 먼저 벌여주자 류현진도 힘을 냈다.

2회를 삼자범퇴로 마친 류현진은 3회 2사에서 블랙먼에게 좌월 2루타를 허용했다. 하지만 D.J.르메이유를 2루수 땅볼로 잡아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타선의 지원을 등에 업은 류현진은 6-0으로 앞선 4회초 에러나도를 중견수 뜬공으로 돌려세웠고, 2사 후 홀리데이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으나 후속 이언 데스먼드를 다시 중견수 뜬공으로 잡았다.

류현진은 4회말 선두 타자로 나와 볼넷을 고른 뒤 곧바로 피더슨의 우월 투런포 때 홈을 밟아 득점도 올렸다. 시즌 두 번째 득점이다.

5회와 6회 연속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친 류현진은 7회 팻 벨라이카에게 좌전 안타를 맞아 처음으로 선두 타자를 내보냈지만, 헛스윙 삼진과 2루수 앞 병살타로 임무를 완수했다.

콜로라도의 구원 투수 오승환은 허벅지 근육통을 떨쳐내고 출격에 대비했으나 팀 패배로 등판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류현진이 18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다. /연합뉴스



## 우즈, 마지막엔 웃을까

21일 PGA 페덱스컵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 출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최강자 30명만 추려 ‘최후의 1인’을 가리는 마지막 대회 투어 챔피언십에 5년 만에 타이거 우즈(미국)가 돌아온다.

21일(한국시간)부터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 레이크 골프클럽(파70·7385야드)에서 열리는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875만 달러)은 시즌 ‘왕중왕전’이라 할 수 있다. 2017-2018시즌 PGA 투어 정규 대회와 앞서 열린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3개 대회까지 선수들의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한 페덱스컵 랭킹 상위 30명만 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157만5000달러(약 17억8000만원), 페덱스컵 1위를 차지하면 1000만달러(112억9500만원)를 받는다. 우승과 페덱스컵 1위 둘 다 잡으면 한 번에 약 130억 원을 가져갈 수 있다.

‘골프 황제’로 군림했던 우즈는 페덱스컵에서도 족적을 남겼다.

페덱스컵이 도입된 2007년 첫 1위의 주인공이 됐고, 2009년까지 두 차례 페덱스컵 1위에 오른 유일한 선수다. 2007년엔 투어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도 가져갔다.

하지만 최근엔 부진해 투어 챔피언십 근처에도 오지 못했다. 2013년 이후 5년 만에 이 대회를 치른다.

현재 1000만 달러의 보너스에 가장 가까운 선수는 단연 페덱스컵 랭킹 1위인 브라이언 디셈보(미국)다.

PGA 투어에 따르면 그는 이 대회에서 공동 29위까지 내려가더라도 산술적으로 페덱스컵 1위를 지킬 확률이 남아 있다.

이번 대회에 한국 선수는 출전하지 않는다. 가장 가까웠던 안병훈이 지난 대회인 BMW 챔피언십 결과 페덱스컵 랭킹 42위로 시즌을 마쳤다. 교포 선수로는 현재 페덱스컵 랭킹 22위인 케빈 나가 유일하게 나선다. 다른 아시아 선수로는 마쓰야마 히데키(일본-페덱스컵 랭킹 27위)가 있다. /연합뉴스

## ‘퓨처스 다승왕’ 1군 접수하러 왔소

KIA 투수 전상현

오늘 삼성전 전역후 첫 선발

상무서 올 13승·평균자책점 3.06

위기의 마운드 ‘반전카드’

‘퓨처스리그 다승왕’ 전상현이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 지난 11일 상무에서 전역한 투수 전상현이 복귀 후 두 번째 경기를 선발로 소화한다. 지난 14일 롯데원정에서 두 번째 투수로 1이닝을 던졌던 전상현은 19일 삼성 원정에서는 선발로 나선다. 지난 2016년 대구 상원고를 졸업하고 KIA 유니폼을 입은 그는 데뷔 첫해 8경기에 나와 13.1이닝을 소화, 8.10의 평균자책점으로 2패만 기록했다.

하지만 데뷔 시즌이 끝나자마자 상무에 입단한 그는 올 시즌 20경기에서 120.2이닝을 던져 3.06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13승을 쟁했다.

퓨처스리그 다승왕 타이틀을 가지고 제대할 그는 바로 콜업을 받으면서 KIA 복귀전을 치렀다. 그리고 선발 역할까지 맡게 됐다.

전상현은 “일찍 군대에 다녀올 수 있어서 좋았다. 많은 것을 배웠다. 내 시간이 많으니까 하고 싶었던 것을 많이 했다. 특히 체력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운동을 했다”며 “바로 1군에서 뛴

거라 생각 못 했는데 기분이 좋다. 처음 마운드에 올랐을 때는 몸이 붕 뜬 느낌이 있었다. 부담도 있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잘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기태 감독의 기대대로 전상현이 반전의 카드가 되어준다면 KIA의 순위 싸움에 큰 힘이 실리게 된다. 하지만 1군의 벽은 높다. 복잡한 마운드 계산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상현의 손끝에 눈길이 쏠린다.

KIA는 올 시즌 내내 선발 고민에 빠져왔다. 기대했던 선수들의 부상·부진과 벤치의 변칙 운영 탓에 마운드 변동이 심했다.

‘우승 주역’ 임기영이 어깨 부상으로 시즌 출발이 늦어지자 이민우와 정용운이 4-5선발로 기회를 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부진 속 불펜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한승혁이 선발 자리를 잡았다.

그 사이 임기영이 돌아오면서 선발진 구성이 갖춰지는 것 같았지만 첫 선발 시즌을 보내는 한승혁의 기복이 컸다.

임기영도 부상 후유증으로 위력이 떨어졌고, 두 외국인 선수 헤테라와 팻딩도 제 몫을 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마운드에 많은 변수가 등장했다.

긴 재할을 끝낸 윤석민이 선발로 우선 투입되면서 변화가 있었고, ‘말형’ 임창용도 앞자리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팻딩과 임기영이 불펜에서 경쟁 구도를 형성하기도 했다.

헤테라의 장염 여파 등으로 황인준이 두 차례 임시 선발로 출격했고, 고졸 루키 김유신도 임시 선발 타이틀을 달기도 했다. 한승혁은 선발 전날에도 불펜 대기에서 내서는 등 예측 불허의 마운



드는 위태롭게 흘러갔다.

아시아게임후식기로 재정비의 시간을 벌었지만 아직도 KIA 마운드는 요동치고 있다.

두 차례 선발 등판 뒤 다시 팻딩이 중간으로 이동했고, ‘예비역’ 전상현이 선발로 투입된다. 퓨처스리그 두 경기에서 회복세를 보인 한승혁은 4전 전승을 기록한 kt전에 맞추기 위해 2군에서 숨을 고르고 있다.

KIA 임창용의 선발 이동, 마무리 윤석민의 부진 속 김윤동의 부담이 집중되면서 선발뿐만 아니라 마운드 전체가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살얼음 같은 시간을 겪고 있다.

그만큼 ‘전상현 카드’는 열세의 팀들을 만나야 하는 험난한 한 주의 결과는 물론 시즌 마지막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신·구 골프여제 국내 무대 대결

신지애·박성현 21일부터 KLPGA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출전

세계 여자 골프에서 한국 선수로는 맨먼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전설과 현역 세계 넘버원이 국내 무대에서 대결한다.

한국인 최초로 세계랭킹 1위에 올랐던 신지애와 현재 세계랭킹 1위를 지키는 박성현은 함께 오는 21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용인 88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투어 중도해지 OK 정기에금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이하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한다.

신지애와 박성현이 KLPGA투어 대회에 나란히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지애는 지난 2010년 5월 한국인 사상 처음 세계랭킹 1위

에 오르는 등 모두 25주 동안 ‘넘버원’의 자리를 지켰다.

박성현은 현역 세계 1위다. 지난해 잠깐 1위에 올랐다가 올해 다시 1위를 꿰찼고 5주째 최고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신지애가 흘러간 스타라고 여기면 오산이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에서 활동하는 신지애는 지난달 초부터 지난 9일까지 치른 5개 대회에서 2차례 우승과 2차례 준우승, 그리고 한차례 3위를 차지했다.

KLPGA투어 1인자 자리를 노리는 ‘5동’도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벌인다. 상금랭킹 1위 오지현, 대상 포인트 1위 최혜진, 평균타수 1위 이정은 등 기존 ‘빅3’와 다승 1위 이소영과 상승세가 뚜렷한 배선우가 모두 이 대회에 출전한다. /연합뉴스